

# 염불염습 장례봉사 앞장

## 신행현장

### 백련선우회 이화수 부회장

17일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 조리실.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노인 2000여명의 점심공양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잿빛 법복을 입은 한 보살이 눈에 띈다. 무우 껍질을 벗기고, 파를 다듬고, 국그릇을 옮기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자원봉사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화수 보살. 언뜻 50대 중반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노보살이다.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 이 보살은 자신도 노인인면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즐겁게 하고 있다. 손이 떨려 식판을 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 준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자원봉사는 다른 봉사행 가운데 하나, 즉 병신의 일각일 뿐이다.

이 보살은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군법당,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하는 어려운 사찰과 복지시설들, 소년소녀 가장의 집 등 소외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특히 이 보살이 주력하는 봉사활동은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과 일원동 삼성의료원, 인연당은 상가집에

서 펼쳐진다. 무연고자나 소년소녀 가장 등 돈이 없는 환자나 고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케어, 염불기도, 장례봉사 등이 그것이다.

이날 오후 3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마친 이 보살은 함께 온 이경순, 김옥연, 임순덕, 김민숙, 배경민 보살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충동 백련선우회 사무실로 향했다. 보다 어려운 봉사행인 장례봉

### 군법당으로 영안실로

### 6년동안 매일 봉사활동

### "염습서 무상도리 배워요"

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임종에서 다비까지 진행되는 불교장례식은 죽은 시신을 염할 때 나오는 악취와 분비물 등 전문적인 훈련과 웬만한 신심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자원봉사이기 때문이다.

장례봉사 교육은 임종기로부터 시작됐다. 가족의 평안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염불기도, 고인의 몸을 반듯하게 모시는 수시(收屍), 법사의 염불염습에 맞춰 정성껏 몸을 닦아 수의를 입혀주는 염습(殮



백련선우회 강의실에서 염습실습을 하고있는 이화수 보살(맨 오른쪽).

儀, 목관에 고인을 모시는 입관(入棺), 상가에서 장지로 출발하는 발인(發引), 화장장에서의 다비(荼毘) 또는 매장, 납골당 및 위패봉안까지 불교식 장례의 모든 것을 차례차례 습득시켰다.

"장례봉사에서 영가와 상주와 한 마음이 되어 시신 한번 거두어 보면 절에 몇 년 다닌 것과 같은 공부 효과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 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산공부를 하게 돼요."

이 보살은 장례봉사를 통해 불자들이 불교의 생사관(生死觀)과 무상관(無常觀)을 저절로 깨닫게 되어 불교 공부가 일취월장하게 된다고 체험담을 이야기 했다. 처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젊은 영가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의 생생한 환희심, 영안실에서 장의사로 취급받고 수모를

당했을 때의 하심공부, 시신에서 나오는 악취가 원래 없는 것임을 관찰할 때의 마음자리, 영가가 눈에 보일 때 법성계를 외우며 보이지 않게 하던 일 등 무공무진한 공부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보살이 장례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7년전, 조계사의 목실한 신도였던 여동생의 시어머님이 임종종자 장례의식이 철저하게 기독교식으로 진행되어 충격을 받은 것. 이 때부터 이 보살은 장례의식을 직접 배워 96년 6월 백련선우회(회장 성태용)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웃 종교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종교가 되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정신적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이화수 보살은 여생을 불교 장례문화 보급을 위해 바치겠다는 원력을 내비쳤다. (011)9035-7166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 중생은 부처 될 수 있어요"

21일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성북경찰서 불자회원 여러분들이 이곳 천중사에 찾아오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항상 민생치안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합니다.



법현스님

천중사 주지

꿈을 먹고 자라나는 애벌레가 있었어요. 그 애벌레는 늘 일어나서 먹고 놀다가 자고... 하는 단조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고, 먹고, 자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자 남에게 물기 시작했

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졸무늬 애벌레를 만났는데 묘하게도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모퉁이로 가서 보급자리를 틀고

것을. 그리고 굵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요? 트리나 포울러스 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예요. 애벌레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은 이를테면 인생을 살아가거나 출가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길을 가면서 다른 이에

게 물어도 정답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삶의 의미라거나 깨달음은 누가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 가만나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싫어졌다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을 채웠을 뿐이라는 것이겠지요.

나중에 나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인생을 달관한 목표를 이뤘다는 뜻일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이들. 불교말로 중생이라 할 수 있는 꽃들에게. 무슨 희망이냐고요? 그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 즉 씨앗들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씨앗은 누구나 훌륭한 사람, 깨달은 사람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지요. 또 중요한 것은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먹는 중에

컷다리에 달린 털로는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의 대공이에 묻혀주는 수분까지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나비가 꿀만 빨아먹고 수분은 안 한다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죠.

나비가 수분만 해주고 꿀을 먹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이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고 남도 부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서로에게 짐착하게 되어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 했죠. 그래서 서로 헤어져 애벌레는 있었던 목표점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머리 위를 맴도는 거예요. 어딘지 본 듯한 얼굴이어서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온 거예요. 그 나비가 이끄는 대로 나무위로 기어 올라가 거꾸로 매달려 실을 뽑아 자신을 감싸는 고치를 만들고 무섭고 캄캄한 나날들을 견디었지요.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쬐던 어느 날, 그도 껍질을 벗고 손발은 움직이니 예쁜 날개를 단 나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꽃들이 힘차게 웃을 짓고 있는 법판으로 날아가 이 꽃저 꽃 사이를 다니며 맛있게 꿀을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되었답니다. 애벌레가 길을 가는 것도 애벌레가 되기 위한 것이었고, 나비가 되는 것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서로가 이롭게 하며 깨달음의 길 가도록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서로에게 짐착하게 되어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 했죠. 그래서 서로 헤어져 애벌레는 있었던 목표점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머리 위를 맴도는 거예요. 어딘지 본 듯한 얼굴이어서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온 거예요. 그 나비가 이끄는 대로 나무위로 기어 올라가 거꾸로 매달려 실을 뽑아 자신을 감싸는 고치를 만들고 무섭고 캄캄한 나날들을 견디었지요.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쬐던 어느 날, 그도 껍질을 벗고 손발은 움직이니 예쁜 날개를 단 나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꽃들이 힘차게 웃을 짓고 있는 법판으로 날아가 이 꽃저 꽃 사이를 다니며 맛있게 꿀을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되었답니다. 애벌레가 길을 가는 것도 애벌레가 되기 위한 것이었고, 나비가 되는 것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것은 바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고 남도 부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것을. 그리고 굵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요? 트리나 포울러스 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예요. 애벌레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은 이를테면 인생을 살아가거나 출가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길을 가면서 다른 이에

게 물어도 정답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삶의 의미라거나 깨달음은 누가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 가만나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싫어졌다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을 채웠을 뿐이라는 것이겠지요.

나중에 나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인생을 달관한 목표를 이뤘다는 뜻일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이

들. 불교말로 중생이라 할 수 있는 꽃들에게. 무슨 희망이냐고요? 그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 즉 씨앗들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씨앗은 누구나 훌륭한 사람, 깨달은 사람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지요.

또 중요한 것은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먹는 중에

컷다리에 달린 털로는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의 대공이에 묻혀주는 수분까지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나비가 꿀만 빨아먹고 수분은 안 한다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죠.

나비가 수분만 해주고 꿀을 먹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이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고 남도 부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서로에게 짐착하게 되어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 했죠. 그래서 서로 헤어져 애벌레는 있었던 목표점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머리 위를 맴도는 거예요. 어딘지 본 듯한 얼굴이어서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온 거예요. 그 나비가 이끄는 대로 나무위로 기어 올라가 거꾸로 매달려 실을 뽑아 자신을 감싸는 고치를 만들고 무섭고 캄캄한 나날들을 견디었지요.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쬐던 어느 날, 그도 껍질을 벗고 손발은 움직이니 예쁜 날개를 단 나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꽃들이 힘차게 웃을 짓고 있는 법판으로 날아가 이 꽃저 꽃 사이를 다니며 맛있게 꿀을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되었답니다. 애벌레가 길을 가는 것도 애벌레가 되기 위한 것이었고, 나비가 되는 것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것은 바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고 남도 부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서로에게 짐착하게 되어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 했죠. 그래서 서로 헤어져 애벌레는 있었던 목표점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머리 위를 맴도는 거예요. 어딘지 본 듯한 얼굴이어서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온 거예요. 그 나비가 이끄는 대로 나무위로 기어 올라가 거꾸로 매달려 실을 뽑아 자신을 감싸는 고치를 만들고 무섭고 캄캄한 나날들을 견디었지요.

## 신행 캘린더

10월 25일(목) ■만일염불 회향법회=강원도 고성 건봉사. 오전 10시 설산 스님의 만일염불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2)732-1215

■통도사 개산대제=통도사는 오전 10시 창건 1356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55)382-7182

10월 26일(금) ■한타스님 초청 특별법회=보현불교회관은 오후 7시 보현불교대학 법당에서 문사법회 회주 한타스님(경토사 주지)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한방요법 교육=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13일까지 한방요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매주 화 금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이번 교육은 '손에서 인체 따지기' '오행으로 본 인체 따지기' 등으로 진행된다. (02)723-5101

■티베트 영화 무료상영=티베트 후원 모임 후리 티베트(FREE TIBET)는 오후 3시 30분 신촌 문화카페 민들레 영토 신관 4층에서 티베트 관련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02)363-6339

10월 27일(토) ■미항사 산사음악회=전남 해남 미항사는 오후 5시 대웅전 앞에서 진유림(법고), 김세화(색스폰) 김광복(대평소 등 지역출신 음악인들)을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61)533-3521

10월 28일(일) ■마애사 범종타종 법회=경남 함양 마애사는 오전 11시 범종타종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 이어 가을맞이 산사열린 음악회'도 열린다. (055)584-5114

■아제아제 하루찾집=불교문화답사 모임 아제아제는 광주 금남로 전통찻집 숯대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찾집을 연다. (062)226-3868

10월 30일(화) ■5백년한 봉안법회=제주도 서귀포 약천사는 31일까지 나한전 5백년한 봉안법회와 국제가사불사를 봉행한다. (064)738-5000

10월 31일(수) ■불로사 어린이합창단 공연=경남 구미 불로사 룸비니 어린이합창단은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을 위한 비천의 소리'를 주제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054)453-7424

## 생활속의 불교

## "역경계"를 스승 삼으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겪게 되는 경계란, 내가 수역급 전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로 나의 다른 모습이

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제의 업이 내일의 경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알고 보면 모든 경계는 거짓 자기 때문이다. '나' '나의 것'이라는 관념이 없다면 어떤 경계도, 미혹과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다가온 경계에 필멸하지 마라. 다가온 경계를 붙들고 공공거리지 마라. 어차피 닦진 것, 의연히 대처하지는 못하더라도 애써 마음 속

에 담아놓고 괴로워할 것까지야 없지 않은가. 역경계에 부딪쳤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닦지는가' 하고 의기소철할 일이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성숙할 기회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가 자기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기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곧 중생심이다. 반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면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고로 순경에도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경계가 오면 좋아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경계가 닦치더라도 쥘

쥘 웃어버린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경계가 닦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순경계가 와도 묵묵히 흘려 보낸다. 닦쳐오는 경계는 같건만 그것에 응대하는 어찌 이리도 다른가. 실로 수행자의 경지는 경계에 닦쳐서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떠한 경계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번뇌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탐욕, 죄업, 갈애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본래 텅 빈 허공의 환으로 생긴 신기부처님 일어난 것이다. 환공처럼, 번갯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눈병 난 사람이 멀쩡한 허공에 꽃보라가 날리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인과의 경계는 그러한 것이다. ■龍眼

# 탈 중 공 고

- |      |    |       |          |
|------|----|-------|----------|
| 흥덕사  | 자운 | 천수암   | 관음행      |
| 연실사  | 성진 | 삼보약수암 | 정현       |
| 자연암  | 자연 | 약사암   | 나숙자      |
| 보운정사 | 도우 | 갑성사   | 법륜       |
| 화엄선원 | 혜공 | 견성암   | 종안       |
| 용두사  | 혜성 | 영신암   | 의연       |
| 불광정사 | 선우 | 보현사   | 법선 (홍순자) |
|      |    | 견성암   | 대공 (채성아) |

귀 종단의 종풍 종지가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0. 24



## "BBS 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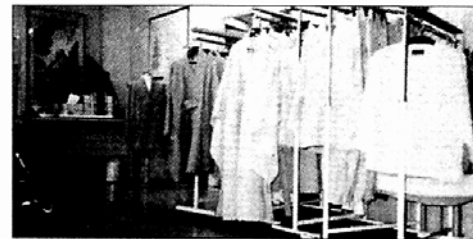
##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 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울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 추동복 : 축감이 매우 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 ◆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축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랑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운을 더한 장삼.
- ◆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 판매가격표     |             |     |         |
|-----------|-------------|-----|---------|
| 스타일       | 구분          | 판매가 |         |
| 추동복       | 저고리 바지, 조끼  | 남·여 | 150,000 |
|           | 두루막         | 남·여 | 130,000 |
| 누비        | 중 방         | 남·여 | 120,000 |
|           | 상 방         | 남·여 | 190,000 |
| 장삼        | 두루막         | 남·여 | 160,000 |
|           | 방한복         | 남·여 | 130,000 |
| 보온복       | 보온복         | 남·여 | 70,000  |
|           | 장삼 (조계종 대고) | 남·여 | 220,000 |
| 승가방       | 중           |     | 28,000  |
|           | 소           |     | 23,000  |
| 마당 (연꽃무늬) |             |     | 30,000  |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卍號를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원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